



hananimuibep.org

하나님의 법:

부록 2: 할례와 기독교인

할례: 거의 모든 교회가 폐지되었다고 여기는 계명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계명 중에서, 할례는 거의 모든 교회가 잘못되게도 폐지되었다고 여기는 유일한 계명으로 보입니다. 이 합의는 너무나 광범위하여, 서로 교리적으로 대립했던 집단들—가톨릭 교회와 개신교 교단들(오순절 교회,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등)—뿐만 아니라, 흔히 이단으로 분류되는 집단들(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등)까지 모두 이 계명이 십자가에서 폐지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폐지를 가르치지 않으셨다

이 믿음이 기독교인들 사이에 널리 퍼진 데에는 두 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이러한 교리를 가르치신 적이 없고, 예수님의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바울 포함)까지 이 계명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의 서신을 이용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어디에도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백성(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이 이 계명에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할례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일부가 되기 위해 모든 남성에게 요구되었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서의 할례

어떤 사람도 할례를 받지 않고는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에 편입될 수 없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그분의 특권을 받은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물리적 표징이었습니다.

또한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생물학적 후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공동체에 공식적으로 편입되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대우받기 원한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명확히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네 집에서 태어난 자나 네 돈으로 산 이방인 모두에게도 해당된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며, 너희 육체에 있는 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창세기 17:12-13).

이방인과 할례의 요구

만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의 일부가 되기 위해 이 물리적 표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메시아 오시기 전에는 할례를 요구하시고 오신 후에는 요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변덕을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변화를 지지하는 예언이 없다

만약 그런 변화가 있을 예정이었다면, 그것은 예언자들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고, 예수님께서도 승천 이후에 그러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 어디에도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될 때,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나 다른 계명에서 면제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두 가지 흔한 이유

첫 번째 이유:

교회들이 하나님의 할례 명령이 폐지되었다고 잘못 가르친다

교회들이 하나님의 할례 명령이 폐지되었다고 가르치는 첫 번째 이유는—누가 그것을 폐지했다고 주장하는지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이 계명을 이행하는 데에 따르는 어려움 때문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이를 폐지하라고 지시하신 적이 없다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가르친다면, 많은 신자들을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계명은 수행하기에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의학이 발달한 현대에서도, 이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기독교인은 전문의를 찾아야 하고, 건강보험이 거의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비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수술 후 회복 기간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가족과 친구, 심지어 교회로부터의 반대와 사회적 낙인을 견뎌야 합니다.

개인적인 간증

사람이 주님의 이 계명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지 않는다면, 중도에 쉽게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을 포기하라는 유혹은 넘쳐납니다. 저는 63세에 이 계명에 순종하여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의 위임 또는 권한 부여에 대한 오해

두 번째 이유이자, 실제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위임 또는 권한 부여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오해는 악마에 의해 일찍부터 악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불과 수십 년 만에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권력 다툼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후계자들에게 하나님의 법에 대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셨다는 터무니없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왜곡은 할례를 넘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다른 계명들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이 모든 계명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신실하게 지켜왔던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권한 문제

악마의 영감을 받은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대한 어떠한 위임도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구약의 예언자들이나 메시아를 통해서만—주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무시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변경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의 어떤 예언자도, 예수님도, 메시아 이후에 아버지께서 어떤 집단이나 개인에게 하나님의 계명 중 가장 작은 것이라도 무효화하거나 폐지하거나 수정할 권한이나 영감을 주실 것이라고 경고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의 계명을 지키라” (신명기 4:2).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돌아가신 직후, 악마는 교회 지도자들을 이용하여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계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개별성의 상실

교회가 의도치 않게 중재자가 된 문제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는,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관계에서 개별성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원래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초기에 교회는 그 역할을 스스로 맡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 아래 각 신자가 아버지와 아들과 직접 관계를 맺어야 했으나, 사람들은 전적으로 지도자들에게 의존하여 주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시고 금지하시는지 판단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접근 제한

이 심각한 문제는 주로 16세기 종교개혁 전까지 성경 접근이 성직자들에게만 허락되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일반 백성이 스스로 성경을 읽는 것은 명시적으로 금지되었으며, 그 이유는 성경을 성직자의 해석 없이 스스로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대한 의존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매달리는 현실

다섯 세기가 지났음에도, 성경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지도자들의 가르침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그것이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스스로 배우고 실천하는 데에는 무능한 상태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도 존재했던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원한 계명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들은 여전히 모든 교단의 신학교를 통해 전수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

내가 아는 한,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신 내용을—곧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도 하나님의 계명 중 어떤 것도 무효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미래의 지도자들에게 가르치는 기독교 기관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한 글자나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릴 것이며, 이 계명들을 지키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라 불릴 것이다” (마태복음 5:18-19).

일부 교단에서 나타나는 부분적 순종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선별적 순종

몇몇 교단은 주님의 계명들이 영원히 유효하며, 메시아 이후의 어떤 성경 저자도 이 진리에 반하는 글을 쓴 적이 없다고 가르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어떤 신비로운 이유로 인해, 그들은 여전히 기독교인에게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계명의 목록을 제한합니다.

이러한 교단들은 보통 십계명(특히 [제4계명의 일곱째 날 안식일](#))과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정](#)만을 강조하며, 그 외의 계명들은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선택적 순종의 불일관성

가장 이상한 점은, 이런 특정 계명들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 왜 이 계명들은 유효하고 다른 계명들—예를 들면, [머리카락과 수염 관리](#)나, [tzitzit \(술, 끈, 장식\) 착용](#) 또는 할레 등—은 무시하거나 옹호하지 않는지를 구약 성경이나 복음서의 명확한 근거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남습니다: 만일 주님의 모든 계명이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라면, 왜 일부만 순종하고 나머지는 무시하는 것입니까?

영원한 언약

언약의 표징으로서의 할레

할레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언약의 표징입니다. 이 백성은 세상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무리였으며, 항상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었고, 일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생물학적 후손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무리의 첫 번째 사람으로 세우신 순간부터, 주님은 할레를 언약의 눈에 보이는 영원한 표징으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혈통에서 태어난 자든 그렇지 않은 자든,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이 물리적 표징을 가져야 한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에 사용되는 사도 바울의 글

성경 정경에 미친 마르키온의 영향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등장한 다양한 문서들을 처음으로 편집하려 한 시도 중 하나는, 2세기의 부유한 선주였던 **마르키온**(주후 85-160)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마르키온은 바울의 열렬한 추종자였으나, 유대인들을 경멸했습니다.



15세기 화가 지오반니 벨리니(Giovanni Bellini)가 그린 작품으로, 아기 예수가 조셉과 마리아와 함께 할례를 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경은 주로 바울의 서신들과,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을 표절한 것으로 여기는 자신만의 복음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마르키온은 다른 모든 복음서와 서신들을 거부하고 영감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의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 대한 모든 언급이 삭제되었으며, 예수님 이전의 하나님은 바울이 선포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마르키온의 성경은 로마 교회에 의해 거부되었고, 그는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글만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인정하고, 구약 전체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거부하는 그의 관점은 이미 초기 기독교인들의 믿음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첫 공식 성경 정경

신약 성경 정경의 형성

첫 번째 신약 성경 정경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돌아가신 후 약 350년이 지난 4세기 후반에 공식적으로 확립되었습니다. 로마와 [히포 회의\(393\)](#) 및 [카르타고 회의\(397\)](#)에서 열린 가톨릭 교회 공의회가 오늘날 우리가 아는 신약 성경 27권을 확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 공의회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 사이에 퍼져 있던 다양한 해석과 문서들을 정리하고 통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 형성 과정에서 로마 감독들의 역할

바울 서신의 승인과 포함

바울의 서신들은 4세기에 로마에 의해 승인된 문서 모음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모음은 가톨릭 교회에 의해 기록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라틴어로는 *Biblia Sacra*, 그리스어로는 Τὰ βιβλία τὰ ἅγια(*ta biblia ta hagia*)라고 불렸습니다.

어떤 문서들을 공식 정경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한 수 세기의 논쟁 끝에, 교회 감독들은 다음을 기록하다고 선언하고 승인했습니다: 유대인의 구약 성경, 네 복음서, 사도행전(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간주됨), 여러 교회에 보내진 서신들(바울 서신 포함), 그리고 요한의 요한계시록.

예수님 시대의 구약 성경 사용

중요한 점은, 예수님 시대에는 모든 유대인들, 예수님 자신을 포함하여, 오직 구약 성경만을 읽고 인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주로 사용된 본문은, 예수님 탄생 약 300년 전에 편집된 그리스어 번역본인 [칠십인역\(Septuagint\)](#)이었습니다.

바울 서신 해석의 도전

복잡성과 오해

바울의 서신들은 예수님 이후에 등장한 다른 저자들의 글들과 함께 수 세기 전 교회에 의해 공식 성경에 포함되었고, 따라서 기독교 신앙의 기초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글들에 대한 해석에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복잡하고 난해한 스타일로 쓰였으며, 이미 그의 시대에도 해석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베드로후서 3:16 참고). 당시에는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여전히 독자들에게 익숙했지만, 수세기 후 완전히 다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글들을 해석하려는 것은 더욱 큰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권위와 해석의 문제

바울의 권위에 대한 문제

중심 문제는 바울의 글의 중요성이 아니라, 권위와 그 위임의 근본 원칙에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바울에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원한 계명들을 폐지하거나, 무효화하거나, 수정하거나, 갱신할 권한을 부여했다는 교회의 주장은 그보다 먼저 주어진 성경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권한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나 복음서 어디에도, 메시아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소(타르수스) 출신의 어떤 사람을 보내어 모든 사람이 그의 말을 듣고 따르도록 하시겠다는 예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과 복음서에 일치하는 해석 필요성

일관성의 필요성

이는 곧, 바울의 서신에 대한 어떤 이해나 해석이든, 이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기독교인은, 구약의 예언자들과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계시들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서신서 해석—바울의 것이든 다른 저자의 것이든—을 거부해야 합니다.

성경 해석에서의 겸손

기독교인은 다음과 같은 지혜와 겸손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이 구절을 이해하지 못하며, 내가 읽은 설명들도 주님의 예언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지지되지 않기 때문에 거짓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제쳐두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언젠가 그 의미를 나에게 밝혀주실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방인들을 위한 큰 시험

순종과 신앙의 시험

이것은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부여하신 가장 중요한 시험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여정 동안 유대 백성에게 주어진 시험과 유사합니다. 신명기 8:2에 기록된 것처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모든 길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계명을 지키는지 여부를 알기 위함이었다.”*

순종하는 이방인 식별하기

이러한 맥락에서, 주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백성에 진정으로 합류하고자 하는 이방인들을 식별하고자 하십니다. 이들은 교회로부터의 강력한 압력과, 여러 서신서에 등장하는—선지자들과 복음서에서는 영원하다고 선언된—여러 계명들이 이방인들에게는 철회되었다고 암시하는 듯한 수많은 구절에도 불구하고, 모든 계명, 할례를 포함하여,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자들입니다.

육체와 마음의 할례

하나의 할례: 물리적이면서 영적인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점은, 두 종류의 할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곧 물리적인 할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사용되는 “마음의 할례”라는 표현은, “상한 마음”이나 “즐거운 마음”과 같은 비유적 표현이라는 점은 누구에게나 명백해야 합니다.

성경이 어떤 사람이 “마음에 할례받지 않았다”고 말할 때, 이는 단순히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려는 자세로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속 예시들

다시 말해, 이 사람은 물리적으로는 할례를 받았을 수 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모든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았고, 이스라엘 온 족속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 (예레미야 9:26).

이 구절에서 명백히 드러나듯, 이들은 모두 육체적으로는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나 거룩한 율법을 저버림으로써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육체와 마음 모두 할례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들, 즉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점은 다음과 같은 명백한 말씀을 통해 분명히 드러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류하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육체와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에스겔 44:9).

핵심 결론들

1. 마음의 할례라는 개념은 항상 존재해왔으며, 신약에서 물리적 할례를 대체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다.
2.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모든 자들(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에게는 할례가 요구된다.

할례와 물세례

잘못된 대체 주장

일부 사람들은 물세례가 기독교인들을 위한 할례의 대체물로 제정되었다고 잘못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순전히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선지자들이나 복음서 속에서 메시아의 승천 이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 합류하기를 원하는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할례를 요구하지 않고, 대신 세례를 요구하신다는 구절들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세례의 기원

또한 물세례는 기독교 이전부터 존재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의 “창시자”나 “선구자”가 아니었습니다.

세례의 유대교적 기원 (믹베)

정결 의식으로서의 믹베

세례, 즉 **믹베**는 세례 요한 이전에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잘 확립된 물에 잠기는 의식이었습니다. 믹베는 죄와 의식적 부정으로부터의 정결을 상징했습니다.

이방인이 할례를 받을 때, 그는 또한 믹베를 거쳤습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의식적 정결을 넘어, 물속에 “묻히는” 것을 통해 자신의 옛 이교적 삶에 대해 죽음을 상징하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자궁의 양수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새로운 삶으로의 탄생을 상징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믹베

세례 요한은 새로운 의식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의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방인들이 “옛 삶”에 대해 죽고 “유대인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상징이었다면, 요한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회개의 행위로서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물에 잠기는 의식은 반드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과 같이 부정해질 때마다 자주 물에 잠기는 정결 의식을 행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들은 대속죄일(욘 키푸르) 전에 정결과 회개의 상징으로 믹베에 들어갑니다.



독일 보름스(Worms) 도시에 위치한, 유대인들이 의식적 정결을 위해 사용했던 고대 믹베.

세례와 할례의 구별

각 의식의 고유한 역할

세례가 할례를 대체했다는 주장은 성경이나 유대 전통 어느 쪽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세례(믹베)는 회개와 정결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의식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대신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두 의식 모두 각각 고유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며,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